

오홍홍

=====



Kaming (GM): -바티칸 제 2성기사단 본부-
단장의 호출로 여러분들은 모였습니다.



[용살자]크리프 보른: "흠...."
@앉아서 자신의 갑옷에 윤기를 내는중



[과거]세실리아: @뭐, 구석 자리에 적당히 앉아서 책상에 엮드려 있겠네요
@지정좌석이라면 자기 자리에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불러놓고 왜 아직도 안오는거야!"@흥칫뿡!



[과거]세실리아: "하음."
@저혈압이라 아침에 일어나 있는 건 힘들어...
@머리가 멍 하니 엮드려 있습니다 쭈우욱.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저..피곤하시다면 여기..커피를 타왔어요. 세실리아님"
세실리아가 엮드려있는 탁자옆에 놓여지는 김이 모락모락나오는 머그컵



[과거]세실리아: @별다른 답례 없이 커피를 슬쩍 옆으로 밀어냅니다
@졸린게 아니니까...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시무룩



[과거]세실리아: @뭐어...다른 성당기사단 사람들 사이에서 평이 좋지는 않은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엮이기 싫어하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또! 세실리아 캐롤의 성의 무시하지 말라고했지!"



[과거]세실리아: @자기가 악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기본적으로.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어느세 로즈가 당신의 탁자앞에 마주보고 서있네요!
내려다보고있어요



[과거]세실리아: "별로 상관 없잖아. 할망구."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하와와 로즈님 그게 아니라 제가 피곤하신줄 오해를.."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할.망.구?"
@빠직



[과거]세실리아: @시선만 살짝 올려서 바라보다가 다시 엮드립니다.



[용살자]크리프 보른: "흐음..완벽하군!"



[과거]세실리아: "마.귀.할.멈. 이라고 해줄까."



[용살자]크리프 보른: @갑옷에서 반짝반짝 윤이난다



[과거]세실리아: @독설은 여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그누누..!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카아!



[과거]세실리아: @씨익 웃으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로즈블루를 바라보네요.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으아아 둘다 그만두세요"

-  **[과거]세실리아:** "흡혈귀를 왜 섬멸하지 않는걸까, 참."
"교리에 따르면 엄연히 악마 일텐데."
@슬쩍 비꼬면서, 교리를 내세워 도발합니다.
@불임성이라곤 전혀 없죠. 이런 모습을 보면.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흐응 요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나오는걸까?"
-  **[과거]세실리아:** "악마는 멸해야 하니까. 그 뿐."
-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하와와 싸우면 안되요오"@둘 사이에 끼여 당황하고있다.
-  **[과거]세실리아:** "그게 내 의지이고, 이 기사단의 존재이유일 터."
@캐롤이 당황하건 말건 자기 할 말은 다 해버리는군요.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그래서 이 내가 악마처럼 보인다는말?"
-  **[과거]세실리아:** "글쎄, 과연 어떨까."
@피식 웃으면서 시선을 돌립니다.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알뵈죠.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이이이..! 역시 너 짜증나!"
-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짝
어디선가 나는 박수소리
"자아 거기까지하시고"
"모두 모이셨군요."
제 2기사단의 단장 샤를 다레스
-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늦어! 불러놓고 왜 이제야 나타나는거야!"
-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저기, 매번 아침에 모이는 것좀 어떻게 하면 안될까. 늦을 수록 좋아."
@그렇게 불평하는 로즈를 약올리듯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
-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오늘도 세실리아는 아침이 약하군요"
"뭐뭐 같은 동료끼리 사이좋아지자구요?"
-  **[용살자]크리프 보른:** "흠흠 동료는 소중하지."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일어납니다.
-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런가, 흐응...역시 도.구. 는 소중하게 아껴야겠지."
@다들 들으라는 듯 중얼.
@도구에 강조.
-  **[용살자]크리프 보른:** "틀리다네 세실리아. 동료는 도구와 다르지"
"아니면 세실리아 그대는 우리들을 단지 도구로써 보고있는건가?"
-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글쎄, 신의 뜻 앞에선 나 자신도 도구인걸."
@도발하고는 회피.
@어째서 세실리아는 그렇게까지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걸까.
-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뭐뭐 세실리아의 말대로 우리는 신앞에서 한낱도구에 불가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서로 등을 맡길 수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거면 충분하지 도구는 동료든 상관 없이 말이지"

"무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설이 길어져버렸네"

"자자 주목"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주목 이라고 하면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턱을 괴고요.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

(관심)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앞으로 우리 제 2 기사단은 일본에 일어난 대재앙으로 발생한 다량의 악마들을 퇴치하라는 왼쪽의 지시가 내려왔어"

"또 그쪽의 다른 초상조각들과는 충돌은 피하라고하네요. 말하자면 공동전선?"



[용살자]크리프 보른: "그정도로 사태가 심각한것인가?"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흐음.

@듣지 않는 척 하지만 다 듣고 있었기에...

"찬동하기 힘든데."

"이단과 협력하라니."

@시선은 여전히 돌린 채로 이의를 제기.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그렇지 각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만...과정은 똑같으니까"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교황님의 뜻이야?"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인가 봅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꼬덕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칫."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그러니까 더이상의 이의는 받아드리지않겠어"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럼 혀를 차고 불쾌하다는 듯 탁자에 얹드려버려요.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살짝 손을듭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추기경 급의 명령이었다면 대놓고 무시했겠지만....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저..그러면 출발은 언제인가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교황님의 명령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세실리아에게 있어서 교황님의 명령이란 절대 그 자체니까.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응? 아 오늘 바로 출발이야"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엑!? 그렇게 갑자기?"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아 늦은 이유가 비행수속을 미리 밟아두느냐고 늦은거였거든"



[용살자]크리프 보른: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다네"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하지만 아직 짐이라던가..준비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전장으로 가는데 짐이 뭐가 필요해?"

"무도회 하러 가는거 아냐. 15분이면 챙기잖아."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웃..우우"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세실리아! 캐롤 괴롭히지 말라구!"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걸 괴롭힌다고 표현하다니, 할망구는 물렸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똑바로 노력합니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뭐어? 해보자는거냐!"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언제나 사이가 좋네. 하지만 빨리 준비하는게 좋을걸? 곧 출발이거든"



[용살자]크리프 보른: "나는 준비가 되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도구들의 준비만 끝나면 나도 준비 완료야."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아..네 보른군은 그상태여도 충분하겠죠.."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하면서 캐롤과 크리프, 로즈블루 에게 시선을 한번씩 돌려요.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흥 너같은거 정말 싫어!"

로즈는 세실리아를 지나쳐 사라져버리고

캐롤도 짐을 꾸리러 사라집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뭐, 보른과 샤를만 남으면 그 둘을 마주하겠네요.



[용살자]크리프 보른: "흠...그대는 어찌 그렇게 상대에게 미움을 사려고 하는거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 편이 나도 그쪽도 편할테니까."



[용살자]크리프 보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지옥에 떨어질 마녀를 좋아해서 뭐가 득이 되겠어."

@차갑게 자신에 대해 그렇게 논해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글쎄 그건 너무 자기비하이지 않을까"

"내눈에는 마녀가아닌 성녀로 보이는데"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시력 점검해보는게 좋겠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시력에는 자신있는 편이지. 2.0 2.0!"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신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로 부리고, 무한한 연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내가 어
디가 성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쏘아붙여요



[용살자]크리프 보른: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것인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러니까 딱 이 정도 관계가 좋아."

"나는 너희를 도구로 부리고, 너희는 내 힘을 이용해 악마를 사냥한다."

"그걸로 딱 좋은 거야."

@차가운 눈으로 둘을 노려보며 쏘아붙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요.

@나머지 둘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이거 같길래 멀겠네요"@보른에게



[용살자]크리프 보른: "세실리아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고는 하나 우리는 한번도 그대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않는다네."

"우리를 도구로 부려도 좋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두게 우리는 세실리아 그대를 같은 동료로써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이들도 마찬가지로네.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라고는 하지 않겠네만..알아뒀으면 좋겠군"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뭐 로즈도 저렇게 보여도 사실 세실리아를 믿고 의지하고있으니까요. 음..분명 일본에.."

"כן..데레? 였나 그런거예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조용히 들어요.

@그리고 품에서 성경을 꺼내 한페이지, 한페이지 읽기 시작합니다.



Kaming (GM): 그러면 잠시후 로즈도 준비를 마치고오고 캐롤도 가벼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군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흠 그러면 다들 준비가 된거같으니 출발해볼까요?"



[용살자]크리프 보른: "전장이 우리를 기다리는군"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읽던 구절을 다 읽고 나서야 일어나요.

"동쪽 땅이라..."

"교황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성경을 품에 넣고 발걸음을 옮기죠.



Kaming (GM): 그렇게 여러분은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일본 교토-

여러분이 도착한 일본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악마에게 당한 수많은 부상자들과 희생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초상존재들의 기척들



Kaming (GM): 카미가카리들의 노력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피해는 최대한 억제중인지 아직 사회의 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용살자]크리프 보른: "전장의 냄새로군.."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듣던것보다 심각한 모양이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여기서도 느껴져 악마의 기척이.."



[님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대체 왜 이런일이..."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이유보단 해결책을. 전부 몰살할거야?"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일단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걸 막아야지 도시 근처의 악마들을 멀하고 발생 원인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



[님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하지만 이 많은 수...무리예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걱정마 우리에게겐..."

@세실리아를 보며

"성녀님이 함께하니까"

@씨익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흥! 맘에 안드는 호칭이네. 저런게 성녀라니...추녀를 잘못말한거겠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성녀 아니라고."

@드물게도 로즈랑 같은 반응.

@진지하게 화난 표정이군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호칭이야 어떻게 의지하고있으니까"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쫓."

@똘, 당장 상황이 급하므로...그걸로 넘어갑니다. 멋대로 하라지.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악마의 종자들이 몰려와요 우리의 존재를 눈치챈것같아요"



[용살자]크리프 보른: @쿵

"악마를 멸할 시간이로군! 내가 선두에 서겠네!"

@달려나갑니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저 깡통바보..멋대로 나서지말라구.."

하면서 원호하듯 따라갑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훗..그러면 후위는 부탁해요 성녀님. 그리고 캐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끝까지 그러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막대기를 빙빙 돌리며 여유있게 걸어나갑니다.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ㄹ..맡겨주세요 단장님"

@긴장한듯 마법지팡이를 짚 쥐고있지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쏘아 붙이면서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십자가로...

@아군에게 힘을 실어주죠.



Kaming (GM): 그러면 앞에서 보른이 창으로 악마의 종자들 즉 모노노케들을 마구 해치우고

그 뒤에서 로즈의 마법으로 남겨진 잔당을 처리하고

단장은...혼자서 거대한 녀석과 싸우는데 전혀 밀리지않는군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들이 싸움에서 입는 상처는 계속해서 회복되어 갑니다.

@다만, 다치는 순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죠.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역시 세실리아님이세요. 보른님이 멀쩡해졌어요!"



[용살자]크리프 보른: "히야압!"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오른쪽."

@캐롤에게 지시.



Kaming (GM): 보른은 상처가 치료되자마자 바로 다시 뛰쳐나갑니다.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헛! "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할망구, 저 멀리 있는 놈 날려버려."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세실리아의 지시를 받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던 모노노케를 마법으로 날려버립니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누.가. 할.망.구...야!"

@퍼영!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적재적소에 지시를 내리면서...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줘요.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방호가 필요하면 방호를...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멀리있던 녀석이 산화됩니다.

 캐롤 아미테이지: "앗 단장님이..!"

 샤를 다레스: "큭.."
@커다란놈에게 큰거 한방맞고 날아가 땅에 박힙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넌 네 할 일이나 해."
@캐롤에게 쏘아붙이면서, 그대로 십자가를 꼭 쥐고 영력을 운용해요.
@시간에 맞을 수 있을까, 아니, 맞게 해야해.
@밀려나 쓰러진 샤를에게 힘이 되돌아오게....!
"일어나라고, 신의 종자잖아, 당신은!"

 Kaming (GM): 큰놈의 주먹이 벽에 박힌 샤를에게 내려치기전에..

 샤를 다레스: "성녀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먹을 타고 올라가
마무리하죠
@쿠웅

 Kaming (GM): 그 커다란놈을 마지막으로
주변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좋아....."

 캐롤 아미테이지: "하아..하아.."
@영력을 너무 소모했는지 땀을 뻘뻘흘리고있어요

 크리스 보른: "후우....후우"
보른도 무릎을 꿇고 창에 기대고있고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젠장..더럽게 많아.."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다들 상태가....
@살짝 입술을 깨물고...단장인 샤를에게 다가가요.

 샤를 다레스: "후우..."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의 용태를 한번 간단히 살핍니다.
@무리하게 회복시켰기 때문에 부담이 심할텐데...

 샤를 다레스: 과연 단장 다른이들과는 다르게 힘들어하거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물러나자. 이대로는 못버텨."

 샤를 다레스: "....."@주변을 돌아보고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제 2 성당기사단에 합류한 후 처음으로...
@세실리아의 입에서, 다른 기사단 멤버를 심려하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멤버들은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긴 하지만요.

 샤를 다레스: "후..그러네요 지금은 물러날때 그 성녀님이 걱정하는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장난스럽게 웃죠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정했으면 빠르게."

@이번에는 성녀라는 호칭에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시급히 물러나는 쪽이 중요하니까...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오늘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죠!"



[용살자]크리프 보른: "후우..아직 더 할 수 있지만 단장의 명령이라면.."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하아 정말 빨리 몸 씻고싶어어.."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끝났군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아까는 고마웠어요. 세실리아 덕분에 살았어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내 일이야 그게."

@물러나면서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요.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지....

@영력을 흘려 살핍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걱정마요. 이 주변은 확실히 정리했으니까"



Kaming (GM): 그렇게 철수 준비를 하다보면...

세실리아의 영력에 무언가 걸리죠

악마의 기척입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온다. 왼쪽. 앞쪽에."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듣자마자 막대기를 그쪽으로 향해 빛을 발사합니다.



Kaming (GM): 광!

빛에 맞아 폭발하더니..

흐물흐물 형상이 나타납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저건..."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뭐길래 이런 반응을...?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마경..."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어째서 이런데 마경이 있는거야....!"

@신경질적으로 소리쳐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도시 한복판에 마경이라니... 아까의 악마의 종자들은 저곳에서 나왔나 보군요.."



Kaming (GM): 마경

흔히 모노노케라 불리우는 녀석들의 둥지같은 겁니다.

보통 도시같은곳에 있을리 없는겁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이유보단 해결책을...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악마의 기척도 느껴지는걸 보니.."

"단순한 마경은 아니군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저걸 부수려고? 지금 이상태로?"

"제정신이야?"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잠시 고민하다가



[용살자]크리프 보른: "단장 아직 우리는 싸울 수 있다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내버려두면..또 오늘처럼 나올테니까 말이지.."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웃기지 마. 내 도구들이야. 한계는 내가 잘 알아."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아직..할 수 있어요!" @짝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영웅심에 취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셋을 노려보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쳐요.

"영웅같은 죽음 그런건 없어!"



Kaming (GM): 일동 살짝 병찜 느낌으로 세실리아를 쳐다보죠

저런말을 하는 녀석이었나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뭐, 왜."

@그 표정을 보고...그대로 움찔. 하고는, 차갑게 되물어요.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아니.. 그 이외라.. 걱정해주는거야?"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무슨 헛소리야. 노망났어?"

@찌릿, 노려봅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훗 세실리아도 그..츄..뭐시기였군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아니라고."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츠은..?"

@가웃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승산 없는 싸움에 도구가 부서지는게 싫을 뿐이야."

@찌릿...샤를을 죽어라 노려보네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훗 승산은 없지않아요."

"아직 세실리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실리아가 있다면 저희는 쓰러지지않으니까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뭔 바보같은..."

@어이 없다는 시선, 그대로 돌려줍니다.



[용살자]크리프 보른: "아까의 전투도 세실리아가 없었다면 진작에 쓰러졌을것이네"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뭐..그건 사실이니까"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그리고 저 마경을 언제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가와 같은 소모전을 계속하게될꺼예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여기 오는게 아니었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뭐 이것도 신의 뜻"

"저희를 인도해주시겠지요"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는 일반인의 보호와 원인의 제거"

"원인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나칠 수는 없지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여기 오는게 아니었어..."

@같은 말을 다시 한번...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뚝니다.

@영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저 마경을 부수러 가면...다들 그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네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자 그럼 가볼까"



[용살자]크리프 보른: "전장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후딱 해치우고 돌아가 씻는거야"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저 힘낼게요!"



Kaming (GM): 그렇게 여러분은 서서히 마경으로 들어갑니다..

마경은 말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아까와같은 녀석들이 끝도없이 몰려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경의 힘에 여러분은 지쳐갔지요.

그리고 도달한 심장부. 이곳에 악마가 있겠지요.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하아..하아 여기가 분명 심장부.."

@그 단장도 지친듯 인상을 찌푸리고있습니다.



[용살자]크리프 보른: 보른의 윤기나던 갑옷은..

지금은 금이가있구요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로즈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캐롤은 고개를 못들고있구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최대한 지친 티를 안내려 하지만...영력 소모가 극심한건 누가 봐도 알겠군요.

?????: "여기까지 오다니..대단한걸?"



Kaming (GM):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분나쁜 목소리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어디냐 악마야. 이리 나와 심판을 받아라!"

소리칩니다.

?????: "....."

"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의 고막을 찢어버릴듯한 웃음소리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까악..!"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음...."

@귀아파...짜증나.

?????: "정말 웃겼어"

"그 보상으로 선물을 줄게."

"영원한 절망을...."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거절하겠어."



Kaming (GM): @푸욱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뒹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에..?"
@검은 그림자가 캐롤의 배를 뚫고 나와있네요
"우푸...읍!"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럼 바로 술식을 발동해요. 영력을 끌어올려서...회복을...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젠장! 모두 주위를 경계해!"



Kaming (GM): 그러면 주위에 그림자들이 술렁술렁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젠장..본체 본체는 어디냐!"



[용살자]크리프 보른: "크..이대로는 위험하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이딴 그림자에 부서지지 말라고, 너흰 그 정도 약골이 아니잖아!"
@호통을 치면서 상처를 입어가는 일행을 회복시키기 바쁩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회복되는 속도도 떨어져가고....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까악!"



Kaming (GM): 결국 로즈도 당하고합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칫, 정말 도움이 안돼...!"
@그럼 재빠르게 로즈에게 영력을 돌려 안정화시키겠네요



[고귀한 피]로즈블루 블러드레인: "으으..."



Kaming (GM): 하지만
세실리아의 힘이..전해지지않습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

?????: "너...재밌는힘을 쓰는구나?"
@바로옆에서 들리는듯한



[용살자]크리프 보른: "세실리아!"



Kaming (GM): 보른이 세실리아를 밀쳐냅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깹!?"



Kaming (GM): @푸푸푸푹!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럼 내팽개쳐져서 나동그라져요



Kaming (GM): 그러면 세실리아가 있던자리에 그림자들이 꼬챙이처럼 솟아오르고
보른은 그자리에서 꿰뚫려져버립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넘어진 채로 멍하니 올려다보겠네요. 갑옷 째 꿰뚫린 용살자를.



Kaming (GM): 주룩..주룩

보른의 피가

세실리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젠장..보른!"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어째서? 라는 의문이 머리 속에서 든 순간...

@동료들의 목숨이 하나 둘 사그라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성 미카엘]샤를 다레스: "젠...장"

@버티던 샤를도 등에서 다가온 그림자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 "까하하..까하하하!"

"절망했다 절망했어!"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신의 사도씩이나 되면서, 쓰러지지 말란 말야!"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온힘을 다해 회복시켜 봅니다.

@뒤편, 아까부터 무리였지만.



Kaming (GM): 고갈될때로 고갈된 세실리아의 힘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사이

이제 혼자남은 세실리아에게 그림자들이 스물스물 다가오네요

?????: "아아 좋아...절망했어 절망이 느껴져"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분노에 가득찬 눈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봅니다.

?????: 자세히 찾아보면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어디야, 어딤어, 이 악마 자식아...!"

?????: 저 수많은 그림자들 뒤에..

누군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아아, 거기냐...!"

@그럼 망설이지 않고 남은 영력을 전부 끌어모아서 마탄을 날려보냅니다.



Kaming (GM): 하지만 그림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닿지않습니다.

?????: "아직 아직도 절망하지 않은거야?"

"절망해 너의 무력함에 절망해!"

악마의 속삭임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하아, 하, 하, 핫...."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가 성녀야. 뭐가 세실리아가 있으니까, 야."

"결국, 이 정도라고...나는...."

@그대로 힘이 빠져 말을 듣지 않는 다리로 억지로 일어나요.

@비틀, 비틀. 중심 잡기 힘드네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대행자 셋을 데려다 놓고 맡겨도 여기가 한계라고. 나는."

@터덜, 터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목소리 쪽으로....

?????: "히히 절망했다 절망했어?"

그림자들이 세실리아를 가지고 놀듯 뱉니다.

치명상만 피하게끔

절망하게끔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비틀 비틀 간신히 걸음을 옮기던 상태에서 몇 번이고 베이면 그대로 쓰러지고...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으면서, 땅을 기어 목소리 쪽으로 향합니다.

"으..고, 흑....아...으....."

@아파, 너무 아파. 이런 고통을 겪어왔구나, 너희는.

@이런 고통을 겪에 만들었구나, 내가.

@역시...난...어떤 악마보다도 사악한 마녀잖아.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한참을 피를 흘려가며 기어서, 목소리 앞까지 도착합니다.

?????: "끼익 끼익"

수많은 그림자들이 뭉친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형태가 일정하지않고 그저 당신을 비웃고있죠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너는, 뭐야...?"

?????: "히히 나는 절망 이세상의 절망"

"너는 절망했을까나? 절망했겠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않았는데"

"까하하하하하하!"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그럼..난 뭘까?"

@또 한번의 질문과 함께, 영력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불사르듯, 뜨겁게...더욱 뜨겁게.

?????: "까하하하..하?"



[선혈의 성녀]세실리아: @불타는 듯한 선명한 분홍색을 띤 영력이 피어오르고, 실제로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해요.

@세실리아가 입은 검은 수녀복이 불붙어 타오르고, 재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절망이면...나는...마녀야."

"아니, 나는 악마야."

"절망을 태워 죽일 악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절망" 을 노려봅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리고 서서히 머리에서 토끼의 그것과 같이 길쭉한 귀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 "끼히..히히!"

"그건 절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마음에 안드다는 말투군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너는...너 만든...길동무 삼아주마."

@그대로 자신의 영력을 불태우면서, 절망에게 손을 뻗어 목을 그러쥐듯 움켜잡아요

?????: "끼야악!"

@그림자들도 세실리아를 찢러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지옥의 불꽃을...!"

@그림자에게 찢릴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손을 놓아버릴 것 같지만...죽을 기세로 붙잡고 생명을 태워가며 불길을 지킵니다.

????: "끼야아아..절망이다! 절망했어..!"

@이내..불타 사라집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 학....크, 콜록..."

@그림자가 사라져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니, 그대로 자신의 피웅덩이에 쓰러져버리네요.

@...아, 이렇게 죽는건가....

"역시....오는게....아니었어..."



Kaming (GM): 그때...따뜻한 빛이 세실리아를 감쌉니다.

상처가 아물어가지요.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 "...내 ..명하노니.. 상처를 치유...해라.."

@쓰러져있는 캐롤이 구멍난 배를 붙잡고 세실리아에게

"내...명하노니.....상처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뭐하는 거야....바보가....그럴 힘이 있으면, 너나, 치료...하라고....

@어둠 속으로 떨어져가는 의식은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입술이 움찔거리는 정도가 한계...네요.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 "세...실리아님.."

"항사...ㅇ 자신을..자책..하고 비하..하지만 저희는.. 그런 세실리아님..이 항상..걱..정..이여서.."

"해..줄..수 있는게..없어..ㅅ 조 | ..송..해 요"

".....저희가..싸울 수 있었던...ㄱ 세실ㄹ..아님의 도움덕분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도울..ㅈ..레...."

"쿨럭..!"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만두라고..멍청아....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 "이..대..ㄹ면 마경에...감혀버려..ㅇ"

"ㅅ..실..리아님 만큼..이라도....."

이번에는 푸른빛이 세실리아를 감쌉니다.

"으음...."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희...는 절대..세실리아님을...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 "오해...하시면..안되요?"@웃습니다.

그러면 푸른빛이 더더욱 세실리아를 감싸고

주변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나같이, 멍청이...들이야..."

@이제 진짜 악마가 되어버렸는데도, 어째서...



[뒤여진 보석]캐롤 아미테이지 : "세실리아님은...저희..동..료..니..까..ㅇ..."

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주변의 풍경이 바뀝니다.



Kaming (GM): 아까 마경을 발견했던곳

즉 바깥입니다.

그리고 마경의 입구는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모습을 감추는군요.

그곳에는 세실리아만 남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치명상은 치료되었구요.



Kaming (GM): 그리고
몸은 힘의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으아....



Kaming (GM): (기여영)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핑핑 도는 머리를 꾸욱 손으로 누르면서 몸을 일으키면...
@우습게도 진짜 악마가 되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살아남은 자신과...
@목숨을 바쳐서 마경을 닫은 그들이 싸웠던 흔적 뿐이네요.
"아하하...정말...."
@어이가 없네...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잠시 그대로 공공거리다가...일어납니다.



Kaming (GM): 그러면 잠시후 여러분을 찾기위해 나타난
퇴마협회의 인원들이
세실리아를 발견하고
구조합니다.
이후 세실리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뭐...
@일단 이렇게까지 된 이상 자신의 과거 악행에 속죄하는 길은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퇴마협회 쪽에 의지합니다. 위장 신분을 얻고...생활비를 지원 받고...
@대신에 간간히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겠쥬.
@그렇게 고등학교로 배정받고...
@늙지 않으니, 이곳 저곳 옮겨다니면서 전학다니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사시로 시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Kaming (GM): 거기서 토끼귀를 들켜버리는거군요



카미야 쿄코: "세실리아 세실리아. 일어나 늦었어"
@흔들흔들



Kaming (GM): 누군가 세실리아를 흔들어 깨웁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무시한다...
@누군지 알지만, 그렇기에 더 무시한다...



카미야 쿄코: "....."
"그.렁.다.면"
"얍!"
@귀를 만진다!
물론 토끼귀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음...! 야, 야...?!"



카미야 쿄코: "헤헤 일어났다."
데헛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 찌르르 흐르는 감각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요.



카미야 쿄코: "무슨 꿈 꿔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아이씨 정말!"
@베개를 던집니다.



카미야 쿄코: "어푸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다시 드러눕는다....
"악마가 나오는 꿈."



카미야 쿄코: "오늘 학교가는 날이라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안갈거야."



카미야 쿄코: @베개를 치우며
"에에"
"그럼 나도"
@세실리아 옆에 눕는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하암.



카미야 쿄코: "헤헤..세실리아랑 땡땡이..
"단둘..이"
@후헤헤헤헤헤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딱히 말리진 않아요.



카미야 쿄코: 그러고보니
여기 세실리아 집입니다.
당연한듯 들어와있었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여벌 열쇠 막 가져다 쓰지 말라고 했지...."



카미야 쿄코: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없구"
"걱정되서..?"
@데헛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네 내신이나 걱정하는게 어떨까...."



카미야 쿄코: "....."
"몰라 몰라 몰라"
"세실리아 옆에 잇을꺼야!"
@세실리아에게 파고든다
"앞으로 영원히 같이있자. 세실리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래..."
@평소의 그 말대꾸가 없네요.
@너 하고픈대로 해라, 라는 느낌.

카미야 쿄코: "...뭔가 기운없네"



"설마 드디어 세실리아도 나의 대한 마음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냐."



카미야 쿄코: @시무룩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잘라 말하고는 살짝 늘어집니다.
@아침이 힘든건 여전해요....



카미야 쿄코: "헤헤 나도 좀더 자야지~"
@늘어진다
"잘자 세실리아"
@Zzz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래...잠탱아...."
@그리곤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아요.
@잠은 들지 않고, 생각에 빠지죠.
@왜 이제와서 그 때의 일이 꿈에 나온걸까...하는 고민을.....
@그러다가 진짜로 잠들어서 아침은 다 보내겠군요.
@쿄코는...뭐...알아서 하겠지....



Kaming (GM): 웬지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세실리아는 잠이듭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는 다음날이 되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고생하셨습니다
아 피곤해



Kaming (GM): 피곤피곤